

강진, 공공배달앱 ‘먹깨비’ 군민 필수앱으로 자리매김

강진군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잇는 대표 상생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강진군은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진행한 ‘제4회 수국 길축제 연계 먹깨비 할인 이벤트’를 통해 총 주문 4,661건, 총매출액 1억 2,835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8.5%의 매출 상승률을 보였다.

축제 연계 할인 이벤트가 지역 내 배달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이벤트는 축제 기간 동안 5천 원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축제기간외에도 할인쿠폰을 제공해 꾸준한 주문을 유도했다.

특히 강진군 먹깨비는 현재 가맹점 381개소, 누적 회원 7,913명, 누적 주문 52만 6,776건, 누적 매출액 141억 7,300만 원을 기록하며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강진군 내에서는 이미 먹

깨비가 단순한 배달앱을 넘어 군민 누구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생활 밀착형 필수앱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배달의민족 등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수수료와 지역 맞춤형 할인 혜택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먹깨비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국내 최저 수준인 1.5%의 중개수수료와 가맹점 가입비·광고료 무료 정책이다.

높은 수수료 부담이 큰 민간 배달 플랫폼과 달리, 먹깨비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매출을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는 공공형 배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먹깨비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운재 기자



무안군, 연꽃향기 따라 맛도 피었다

한국생활개선무안군연합회(회장 안행자)는 최근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원에서 열린 제29회 무안연꽃축제에서 향토음식점 운영과 ‘양파김치 담그기 체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소비 촉진에 앞장섰다.

생활개선회가 운영한 향토음식점에서는 축제의 주제인 ‘연(蓮)’을 활용한 연근비빔밥, 연잎영양밥, 연근 물냉면 등 특색 있는 향토 음식을 선보여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연의 은은한 향과 건강한 식재료가 조화를 이룬 메뉴들은 부드러운 여름철 입맛을 돋우며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미식 경험을 제공했다.

특히 ‘연꽃축제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며 향토음식점은 행사 기간 내내 많은 방문객으로 북적였고,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용운 기자

목포시, 평화광장에서 즐기는 해양레저스포츠



목포 평화광장에서 해양레저 무료체험교실을 운영하는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는 한국해양소년단 전남서부연맹이 7월 4일부터 평화광장 앞 해상에서 ‘2026 평화광장 해양레저 무료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교실은 전라남도과 목포시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소년단 전남서부연맹이 주관하는 해양레저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다양한 해양레저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체험 종목은 카약, SUP(스탠드업

패들보드), 래프팅보트 등 무동력 체험과 모터보트, 제트스키, 디스코 팟, 플라이피쉬 등 동력 체험이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해양 레저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청소년, 관광객들의 관심이 기대된다.

운영 기간은 7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매주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운영한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전통 발효식초(기초반) 교육’ 실시

전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일 센터 플라워푸드교육장에서 함평군 우리음식연구회 회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전통 발효식초(기초반)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통 발효음식 등 지역 고유의 식문화를 계승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문 강사를 초빙해 현

미 누룩, 막걸리, 복분자, 파인애플 등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식초를 쉽고 간편하게 제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발효식초의 제조 원리와 과정 등 이론 교육과 함께 직접 제조하며 특성과 활용법을 익히는 실습을 병행해 수강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활용 능력을 키우는 과정

으로 진행됐다.

문정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이 전통 발효 식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음식연구회가 지역사회의 음식문화를 선도하며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문수 기자

신안군, 안좌·하의 해역 조피볼락 85만 마리 방류

신안군은 지난 5월 29일 쥐노래미 18만 마리 방류에 이어, 7월 2일 안좌 사치·하의 육도 해역에 수산 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피볼락 85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조피볼락은 전장 6cm 이상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하고 활력이 좋은 종자로, 해당 지선 어촌계(어업인)와 함께 선상 방류를 실시했다.

이번 방류 해역은 23년부터 5년간 40억 원(연간 8억)이 투입되고 있는 조피볼락 산란·서식장을 조성 중인 해역으로, 지금까지 어초(625개) 투하와 수산종자 방류(77만 마리), 해조류(곰피, 다시마 등)를 집중 이식해 놓은 해역이다. 신안군은 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과 서식환경 개선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에 힘을 계속한다.

/박성태 기자

영암 흥복동마을, 지방시대위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주관하는 2027년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생활·위생·안전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 공모사업이다. 영암군은 시종면 흥복동마을을 대상으로 올해 3월 공모를 신청해 전라남도 사전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영암군은 국비 16억원과 지방비 5억원 등 총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 △안길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재래식 화

장실 정비 △노후주택 집수리 등 생활·위생·안전 기반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 역량강화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함께 추진해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문수 기자

